

수원 화성문화제에서 연행 공간과 주민 참여의 관계

도시 이벤트, 지역공동체,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황익주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인류학 전공
ikjhwang@snu.ac.kr

정헌목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인류학 전공
devius21@naver.com

- I. 도시 이벤트, 지역공동체,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간의 관계
- II.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두 층위와 도심을 주요 연행 공간으로 삼는
도시 이벤트 사이의 관계
- III. 화흥문화제에서 화성문화제로의 역사적 발전과정
- IV. 화성문화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들
- V. 상생의 도시 이벤트를 위한 실천방안
- VI. 맺음말

I. 도시 이벤트, 지역공동체,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간의 관계

앞선 연구¹⁾에서 본 연구자들은 도시생활의 구성요소 가운데 축제, 기념의례, 문화예술행사, 스포츠 경기 등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전개되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들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해낼 잠재력을 지닌 행사들을 ‘도시 이벤트(urban event)’로 개념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도시 이벤트가 도시 전체 내지 도시 내 특정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해당 도시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함양시키는 촉매로서의 기능까지는 담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된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강릉·광주·부천·포항 등 국내 4개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도시 이벤트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도시의 지역사회들을 주민들이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며 동일시하여 긍정적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삼는 대상, 즉 ‘도시 지역공동체’로서 형성해내는 일에 도시 이벤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시론적으로나마 도출해보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들은 도시 이벤트가 적절한 소재와 형식을 갖추는 일, 지역주민들이 해당 도시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경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일, 도시 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에서 효율적인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일, 적절한 디자인을 지닌 도시 이벤트의 연행 공간을 확보하는 일 등의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앞선 연구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삼아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수원시를 대표하는 도시 이벤트인 ‘수원 화성문화제’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수원 화성문화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관광 상품으로서의 지역축제에 주목한 것이 전부였다. 이렇다면 방문객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화성문화제에 대한 만족도가 기대감에 비해 낮음을 지적한 류인평의 연구나, 수원

1) 황익주·정현목, 「도시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의 과제: 4개 도시 사례의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5집 2호(2012), 102-128쪽.

근교의 다른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최화열과 노하은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²⁾ 최근에 발표된 김효경과 류시영의 연구³⁾ 역시 화성문화제를 지역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소비자-브랜드 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아직까지 화성문화제를 지역정체성 혹은 지역공동체의 문제와 연관시켜 접근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 화성문화제의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정체성의 표현 및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의 매개체로서 도시 이벤트를 활용하는 데 따르는 각종 문제점이 수원시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구체적 양상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의 해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현장 활동가 및 행정당국자 등이 지닌 현장 경험의 내용에 보다 잘 부합하는 실천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실천방안이 수원 화성문화제라는 도시 이벤트가 지닌 특수성으로 인해 수원 이외의 도시에는 적용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수원 화성문화제가 특수한 도시 이벤트임은 명백하다. 우선, 수원이라는 도시부터가 여러모로 특수하다. 조선시대부터 경기도의 수부도시였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은 수도권의 한 도시로서 수도 서울의 커다란 영향을 받는 도시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김포, 광명, 하남, 구리 등과 같은 서울의 작은 위성도시로 치부하기에는 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이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우수한 기업체들도 역내에 보유하여 경제적 기반도 탄탄한 도시이다. 또한 수원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도시 이벤트 가운데서 화성문화제는 도시축제라는 특수한 장르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축제들 중에서도 단지 한 가지 유형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원 화성문화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얻을 결론은, 다른 개별적 사례들이 지닌 특수한 맥락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수반된다는 전제하에, 수원에서 행해지는 다른 도시 이벤트 일반은 물론, 수원이 아닌 여타

2) 류인평, 「문화관광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화성문화제 관광자의 만족도와 선호도 조사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22집(2004), 47-72쪽; 최화열·노하은, 「지역축제의 관광특성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원화성문화제를 중심으로」,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제19집 1호(2009), 27-35쪽.

3) 김효경·류시영, 「지역축제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영향요인: 수원화성문화제 커뮤니티 케이션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6집 5호(2012), 233-246쪽.

도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시 이벤트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합당하다.

이처럼 개별 사례들이 지닌 특수한 맥락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통해 다른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결론이 수원 화성문화제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으려면, 애당초 수원 화성문화제의 사례가 지니는 특수한 맥락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논리상으로는 무수히 많은 수원 화성문화제의 특수 맥락적 요소 모두를 적절히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수원 화성문화제가 지닌 특수한 맥락들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수원 화성문화제가 수원 화성이라는 수원의 도심에 위치한 역사 유적을 주요 연행공간으로 삼아 행해지는 도시 이벤트라는 점이다. 둘째는 해당 연행공간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을 이루는 수원시 행궁동의 주민들은 수원의 여타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화성문화제를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II.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두 층위와 도시를 주요 연행 공간으로 삼는 도시 이벤트 사이의 관계

본 연구자들이 보기에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도시민들이 형성하는 자아정체성에는 2개의 층위가 공존한다. 그 하나는, 어떤 개인이 예컨대 ‘나는 수원 사람입니다’, ‘나는 원주에 삽니다’ 혹은 ‘우리 집은 춘천입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자아정체성의 일부를 이루는 지역사회로서 상정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인 ‘civic identity’에 상응하는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층위를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체성’이라고 지칭코자 한다. 이처럼 어떤 도시민이 나는 어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도시정체성을 표명하는 언설들에서는 도시의 이름만 언급될 뿐, 해당 도시가 지닌 특성, 나아가 말하는 사람이 그 특성에 대해 지닌 가치평가적 입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정체성의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근년에 들어 ‘도시 이미지 만들기’의 차원에서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각종 실천에 관련된 공공 혹은 학술 담론에 종종 등장하는 도시정체성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전형적인 공업도시로서 생활환경이 별로 쾌적하지 못한 도시라고 일반적으로 인지되어오던 특정 도시의 행정당국자들이나 정책전문가들이 그 도시를 가리켜 ‘문화도시’라고 선언하는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도시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그 도시가 장차 되기를 희망하는 바를 피력하는 것이지 그 도시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네 도시의 현재 모습을 인지하는 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담론에서 주목하는 도시정체성이란 해당 도시가 지닌 객관적 속성들에 의거하여 판별되는 것이어서 그 도시의 주민들이 자아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로서 해당 도시를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핵심으로 삼는 본 연구에서의 도시정체성 개념과는 무관하다.

본 연구자들이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중 ‘도시정체성’이라는 층위에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스스로를 도시민이라고 간주하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도시정체성을 표명하는 말을 할 때, 그는 해당 도시 내에는 자신과 면식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익명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는 점을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인정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도시를 도시가 아닌 취락들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인 도시에는 한 개인이 모두 알고 지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사는 점이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도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수용되어온 견해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른바 ‘도시적 익명성(urban anonymity)’이 도시민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 행동 및 사고의 양태를 발생시키는 원천이라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도시생활의 특성을 논하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왔다.⁴⁾

4) 도시란 ‘이질적인 사람들이 조밀하게 거주하는 대규모의 영속적 취락’이라는 도시에 대한 가장 유명한 개념정의를 제시하면서 시카고학파의 사회학자 워스(Louis Wirth)가 펼쳤던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 이론을 필두로 하여, 사회심리학자 밀그램(Stanley Milgram)이 펼친 ‘인지적 과부하’ 이론, 사회학자 로플랜드(Lyn Lofland)의 ‘낮선 사람들의 세계’ 이론, 그리고 사회심리학자 피셔(Claude Fischer)의 하위문화 이론 등은 그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Louis Wirth,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No. 1(1938), pp. 1-24 및 Edward Krupat, *People in Cities: The Urban Environment and Its Effects*(Cambridge:

이와 같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도시라고 간주하는 곳에서의 일상생활 속에는 익명적 인간관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은 객관적 실재와도 합치하는 인식이다. 가령 현대 한국사회에서 인구 5만 명의 소도시가 있을 때, 비록 인구 규모에 따른 한국 도시의 위계서열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를 점유할지라도, 해당 도시의 주민들이 5만 명이나 되는 타인들과 개인적인 관심과 관계를 표현하고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취락이 도시로서 인식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에는 사회 및 시대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가 본 연구자들 중 한 사람이 1989-1990년에 박사학위 논문⁵⁾ 작성을 위해 아일랜드 공화국의 한 소도시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다. 당시 그는 인구 7,000명이 채 안 되는 소도시-지극히 분산적 취락 패턴을 지닌 아일랜드 공화국에서는 인구 1,500명 이상의 취락을 도시로 간주한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영향권(catchment area)에 해당하는 배후지역으로부터 오가는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탓에, 그 소도시에서의 일상생활 속에는 익명적 인간관계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문화충격을 받은 바 있다.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다른 하나의 층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예컨대 ‘우리 집은 주공 ○단지입니다’, ‘우리 동네는 ○○고등학교 부근입니다’, ‘우리 동네는 춘천시 교동입니다’ 혹은 ‘나는 부산 서면에 삽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에서 드러난다. 이런 경우 그 개인은 자신의 집이 위치하고 있는 작은 근린주구를 비롯하여 보다 크게는 행정동(行政洞), 더욱 크게는 몇 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는 대도시 내의 제법 큰 구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지역적 실체들을 자아정체성의 한 측면을 이루는 지역사회로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이 층위를 포착하여 설명하기 위한 개념화의 시도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여기서 논의하는 지역사회와 의미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영어 단어로 ‘community’가 존재하고, 국내에서의 학술적 논의들에서도 아예 이 단어를 한글로 표기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p. 48-66 등을 참조하십시오.

5) Ik-joo Hwang, *Class, Religion, and Local Community: Social Grouping in Nenagh, Republic of Ireland*, Ph. D. Thesis(University of Oxford, 1992).

한 ‘커뮤니티’가 제법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영어의 community라는 단어는 지역과는 무관한 공통분모를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집단을 지칭하는 데도 매우 널리 사용될 뿐더러 지역적 실체를 지칭하는 경우, 예컨대 오늘날의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처럼 국민국가보다도 규모가 큰 실체까지도 종종 포함한다. 이렇듯 영어의 community 개념은 본 연구의 논의와는 중요한 지점들에서 어긋나는 의미 차원들을 내포한다는 맹점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이 층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말의 ‘동네’라는 단어를 활용한 ‘동네정체성’(영어로 표기하면 ‘dongne identity’)을 제안하는 바이다. 우리말의 ‘동네’라는 개념은 아프리카 수단의 누어(Nuer)족에 대한 인류학자 에반스 프리차드(Evans-Pritchard)의 고전적 연구에서 소개된 누어인들의 ‘씨엥(cienɡ)’이라는 개념처럼 지칭하는 대상의 외연이 매우 탄력적이다. ‘씨엥’은 대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가장 작게는 어떤 사람의 집(homestead)으로부터 좀 더 크게는 자신의 집이 위치하고 있는 소촌락(hamlet), 더욱 크게는 촌락(village) 전체, 나아가 부족(tribe)의 소분파에서 중분파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부족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지역화된(localized) 실체들을 한 개인이 동일시하는 집단으로서 탄력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⁶⁾ 비록 누어인의 ‘씨엥’처럼 자신이 사는 집까지는 포괄하지 않지만, 우리말의 ‘동네’ 역시 대화의 상황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규모의 지역적 실체를 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의 일부로서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의 ‘community’와는 달리, 한편으로는 비지역적 사회집단들,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 전체 혹은 그보다도 더욱 큰 공간적 외연을 지닌 지역적 실체를 지칭하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 바로 우리말의 ‘동네’이다. 그런 까닭에 본 연구자들은 도시민들이 특정 도시 내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언급하여 자아정체성을 표현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동네’라는 단어가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동네’와 의미 영역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 또 다른 우리말 단어이자, 근래에 들어 ‘마을만들기’ 혹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이 확산됨에 따라 용례가 크게 늘어난 단어인 ‘마을’을

6) E. E. Evans-Pritchard, *The Nuer*(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pp. 135-136.

활용하여 '마을정체성'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연구자들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마을'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경관이나 구성원의 측면 모두에서 비교적 명확한 경계가 있는 지역적 실체를 지칭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전체 도시민들 중 스스로를 특정 마을의 주민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을 만들기 등의 지역공동체 지향적 실천을 체험한 바 있는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⁷⁾ 그에 반하여 본 연구자들이 말하는 '동네정체성'이란 '도시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지역정체성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동네정체성에 관련하여 본 연구자들이 주목코자 하는 바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네정체성을 표명하는 말을 할 때, 그는 자신의 '동네'에서의 일상생활에는 도시적 익명성에 수반되는 각종 효과들 중 부정적인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암묵적으로라도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주민들 간의 면식적 관계, 지역사회의 공간적 및 시간적 질서(예컨대, 도로들이나 공공 및 상업 시설 등의 배치 양상, 대중교통이나 공공 및 상업 시설들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공유된 지식, 지역사회 내에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들(예컨대, 도시재개발 사업 등의 결과로 지역사회 내에 생겨난 각종 변화)에 관련하여 개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등이 이런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들 요소는 바로 촌락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를 지역공동체로 만들어주는 핵심적 요소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것들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⁸⁾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는 덕택에 동네는 도시적 익명성이 압도하는 공간이 아니라 친숙성(familiarity)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도시민이 말하는 동네 생활에서의 친숙성의 정도는, 동네라고 상정되는 도시 내 지역의 규모에 따라, 또한 같은 규모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사회적 구성 및 지역공동체 지향적 실천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아울러 자신의 사회적 배경(예컨대, 직업, 거주 연한, 생애단계)을 반영하여 개인들이 '동네 일'에 대해 지니는 관심과 참여의 양상에 따라

7) 가령, 흔히 '삼선교'로 불리는 서울시 성북구의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바 있는 본 연구자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는 삼선교입니다"라는 말은 무수히 했지만, "우리 마을은 삼선교입니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다.

8) Adrian Peace, "A Different Place Altogether": Diversity, Unity and Boundary in an Irish Village," *Symbolising Boundaries: Identity and Diversity in British Cultures*, ed. by Anthony Cohen(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6), pp. 107-122.

매우 커다란 편차를 드러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제 이상에서 밝힌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2개 층위의 존재와 도시 이벤트의 연행 공간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도시민들의 상이한 태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도시 이벤트들은 도시 내의 특정한 장소를 연행 공간으로 삼아 펼쳐진다. 도시 이벤트의 연행공간은 단일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도시 내의 한 작은 구역이 될 수도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복수의 구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도시 전체가 연행 공간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해당 연행공간의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도시 이벤트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공간, 즉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다. 그런데 담론구조상으로 특정 도시 이벤트가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고 상정되는 지역사회의 범위, 바꿔 말해서 도시 이벤트를 거행하는 집합적 주체라고 암묵적으로 상정되는 지역주민들의 공간적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하여 가장 작게는 특정 근린주구의 일로 간주되는 이벤트(예컨대, 아파트 단지 주민 축제,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골목 혹은 재래시장 축제 따위)가 있는가 하면, 주민인구가 1만 5,000명에서 2만 명에 달하는 행정동 차원의 일로 간주되는 이벤트(예컨대, 소위 '동민화합잔치'로 불리는 축제)도 있고, 보다 크게는 주민 인구가 20만 명을 넘고 때론 40만 명을 넘기까지 하는 행정구 차원의 일로 간주되는 이벤트(예컨대, 구청장배 쟁탈 조기축구대회, 행정구 축제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백일장이나 콩쿠르)도 있다. 나아가서는 한 도시 전체의 일로 간주되는 이벤트(예컨대, '○○문화제'라 하여 특정 도시 이름에 '문화제'라는 단어가 덧붙여진 수많은 축제), 또 해당 도시를 포함하는 행정도 차원의 일로 간주되는 이벤트(예컨대, 전국체육대회),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일로 간주되는 이벤트(예컨대, 올림픽)도 있다. 이렇듯 커다란 스펙트럼을 이루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도시 이벤트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도시 이벤트의 집합적 거행 주체로 상정되는 지역사회의 범위에 따른 도시 이벤트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단연코 높은 비중을 지니는 것은 한 도시 전체의 일로 간주되는 것들이다.⁹⁾ 그리고

9) 이렇게 된 데에는 1990년대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시작한 이래 전체 도시 차원의 도시축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난 점, 또한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4대 인기 스포츠 종목에서 도시 연고제에 토대한 프로스포츠화가 진전된 점 등이 상당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도시 이벤트들의 하위유형을 분류해볼 때 연행 공간의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도심 지역을 주요 연행 공간으로 삼는 이벤트들이며, 본 연구에서 집중적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수원 화성문화제 역시 그에 해당한다. 이처럼 도심지역이 도시 이벤트의 연행 공간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는 부분 공간들 간에는 중심성(centrality)의 정도에 따라 도심, 부도심, 도심의 변두리, 부도심의 변두리 등의 위계적 분화가 존재하며¹⁰⁾, 바로 이 위계에서 도심은 정점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다. 배후지역에 대해 상업, 행정, 교통, 종교 등 삶의 여러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 중심지로서의 도시이지만, 이들 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들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들이 도시 내에서도 도심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리하여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들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심지역에 대형 시장, 백화점, 은행, 호텔 등의 상업 시설, 시청 및 중앙정부 기관 등의 관공서들, 중앙역 등의 교통 관련 시설, 그리고 대형 교회 등의 종교 시설들이 입지하고, 그 주변에 대형 광장이나 공원 등의 개방 공간들이 조성되는 것이 근대 서구 도시들의 공간문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이나 개방 공간들이 입지하다 보니 당연히 도심에는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이처럼 대규모 시설 및 개방 공간들이 존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는 사실은, 다시 근대 서구의 사회들에서 한 도시 전체 내지 그보다도 큰 지역사회의 일이라고 간주되는 도시 이벤트들이 흔히 도심지역을 주요 연행 공간으로 삼아 거행되는 양상¹¹⁾이 생겨나게 하는 배경요인을 이루었다.

요컨대, 서구의 사회들에서는 물론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도시 이벤트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 전체의 일이라고 상정되면서 도심을 주요 연행 공간으로 삼아 거행되는 이벤트들이다. 본 연구자들이 주목코자 하는 바는, 이 같은 사실이 도심이 바로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즉, '동네')을 이루는 도심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해 지니는 함의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이다. 도시 내의 여타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10) 황익주, 「도시의 공간성과 지역공동체」, 『2007년도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가족·문화·커뮤니티 발표논문집』(2007), 3쪽.

11) 단적인 예로, 유럽의 무수한 도시축제들이 도심을 주요 연행 공간으로 삼고 있다.

도심의 주민들도 도시정체성과 동네정체성을 모두 지니고 생활한다. 그들도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해당 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도시 이벤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도시민이 지닌 도시정체성에는 도시적 익명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도시 전체 차원의 일로 간주되는 도시 이벤트에 대해서 보통의 도시민들이 자신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성공리에 치러내야 할 행사로 생각하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 결과, 해당 도시 이벤트의 연행 공간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의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행사인 만큼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더라도, 가볍게 단순한 구경꾼 정도로 이따금 참여하는 정도면 해당 도시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셈이라는 식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그런 도시 이벤트들이 가장 빈번히 연행되는 공간인 도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들은 도시 전체의 일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동네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타 지역의 주민들처럼 ‘같은 도시에 사는 무수한 익명의 사람들 중 누군가는 챙겨서 진행할 일이므로 자신은 구경꾼 정도로만 참여하겠다’는 태도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이는 도심 주민들이 지닌 동네정체성과 어긋나기도 하거니와, 그런 식으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기에는 도시 전체의 일로 상정되는 만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도시 이벤트들이 동네에서의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훨씬 직접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까닭이다. 이러한 영향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등이 두루 섞여 있다. 그리하여 여타 지역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도심의 주민들도 도시 이벤트에 따른 긍정적 영향들(예컨대, 현금 수입, 지역의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에 수반되는 경제적·비경제적 혜택 등)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들(예컨대, 관광객을 포함한 수많은 구경꾼이 도래함에 따른 소음·쓰레기·교통 불편 등)은 극소화하고 싶어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들이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 말로는 도시 전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동네에서만 반복적으로 연행되는 도시 이벤트에 대해 도심의 주민들 중 다수 내지 일부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심지어는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의 2개의 층위, 또 도시를 주된 연행 공간으로 삼으면서도 도시 전체의 일이라고 언명되는 도시 이벤트, 그리

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도심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이 수원 화성문화제의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얽히면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표면화시키게 되는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화성문화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이어 2012년 가을에 행해진 제49회 화성문화제 행사를 중심으로 도시 이벤트로서 화성문화제의 기획 및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화성문화제의 주요 연행 공간인 수원시 행궁동의 주민들과 수원의 여타 지역주민들 및 수원시 행정당국 등 참여주체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상생의 도시 이벤트로서 화성문화제가 발전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해볼 것이다.

III. 화흥문화제에서 화성문화제로의 역사적 발전과정

수원화성문화제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일대에서 펼쳐지는 문화축제로서, 주최 측 추산으로 연인원 70만 명 이상이 찾는 수원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축제이다. 원래 화성문화제는 1964년 경기도청 청사 신축을 기념하기 위해 화흥문화제(華虹文化祭)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수원 시민의 날'로 지정된 매년 10월 15일마다 개최되어왔다. 화흥문화제는 화성의 북수문인 화흥문(華虹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이는 화흥문이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수원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¹²⁾ 초기의 화흥문화제는 수원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원 종합운동장 내에서 체육행사 및 각종 기념행사 위주로 진행되다가, 1975년부터 화성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이후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는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가 함께 행해지기에 이르렀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화흥문화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원의

12) 수원의 북수문에 해당하는 화흥문은 1890년대 말 대한제국 1원짜리 지폐의 도안으로 사용될 정도로 건축물로서의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화흥문에 대한 수원 시민들의 오래된 애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일제강점기 화흥문 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화성이 축성된 지 126년이 되던 1922년 경기 남부 지역 대흥수로 화흥문이 상당 부분 유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에 당시 수원 시민들은 수원명소보존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기금을 모아 10년 만인 1932년에 마침내 화흥문 복원에 성공하였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민간이 기금을 모아 문화유산을 복원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대표적 문화유산인 화성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화흥문화제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 수원시장에 당선된 심재덕 시장은 수원시 중점사업 1호로 화성 관련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행정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곧이어 1997년에는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문화재의 명칭이 일제강점기에 바뀐 이름인 ‘수원성’에서 본래의 이름인 ‘화성’으로 되돌려졌으며, 그에 발맞추어 도시축제의 명칭도 화흥문화제에서 화성문화제로 변경되었다. 축제의 형식과 내용도 화성과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어, 1996년 화성 축성 200주년을 맞아 ‘수원 시민의 날’을 10월 10일로 변경-화성 준공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10월 10일인 점을 감안하여-하고 축제 개최시기 역시 변경되었다. 나아가 수원시는 더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구간을 종전처럼 종합운동장 내에 국한하지 않고 수원 시내로까지 연장하였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 의상과 무기 등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복원하고, 화성문화제를 시민들이 거리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추가하였다. 이어 2002년에는 보다 독립적인 축제를 위해 종래 함께 열리던 체육행사를 ‘수원시 체육대회’라는 별도의 이벤트를 만들어 완전히 분리시켰으며, 2003년에는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구간을 현행의 구간인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화성 행궁으로 이어지는 도로(‘정조로’)로 조정하였다.

1990년대 말 이후 추가된 다양한 행사들은 시민들에게 축제와 관련한 간접 체험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화성 및 정조대왕과 관련한 역사적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한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자체가 1795년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직접 모시고 거행한 ‘을묘년 원행’¹³⁾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일부를 재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각종 부대행사가 추가되

13) 정조는 즉위 이후 매년 사도세자 묘소를 참배하였는데, 특히 정조 19년(1795년) 거행된 을묘(乙卯)년의 행차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은 정조는 혜경궁 홍씨를 직접 모시고 수원 남쪽의 사도세자 묘소를 참배하고, 당시 완공 직전이었던 수원 화성의 행궁에서 회갑연을 여는 총 8일간에 걸친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209-223쪽 참조). 현재의 화성문화제는 바로 이 을묘년 원행의 행사 전반을 재연하는 것을 기본 형식으로 삼고 있다.

었다. 우선 정조의 부모에 대한 효심을 명분으로 내세워 ‘해경궁 흥씨 회갑친잔연’ 재연 행사를 추가하였으며,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 수위의식과 야간군사훈련인 야조(夜操)를 재연하는 행사도 덧붙였다. 또한 시내 서예학원들의 협조로 1795년 당시 거행된 향시(鄕試)를 재연하는 과거시험 행사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축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재연 행사에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일반 시민들이 탐을 짜서 능행차 연시에 앞서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환영 퍼레이드’와 ‘깊신 신고 수원 화성 걷기’ 등과 같은 직접 체험 행사들도 마련되었다.

이 같은 변화를 거치면서 화성문화제는 수원시민뿐 아니라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성장하였다. 이에 일반적인 수원시민들 역시 화성문화제가 수원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 그런데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대표되는 ‘외부로부터의 인정’이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화성 관련 사업들이 수원의 시정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된 이유 자체가 ‘외부 동력’에 의해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였다고 한다. 별다른 특색이 없는 산업도시였던 수원을 이른바 ‘문화도시’로 바꾸고자 한 시도의 중심에 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¹⁵⁾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과가 바로 화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1997년)이고, 뒤이은 성과가 화성 축성과정과 을묘년 원행의 세부사항을 기록한 『화성 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07년)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성문화제 역시 이 같은 시도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강릉 단오제처럼 수원 화성문화제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이 다음번 목표라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이후 수원 화성이 지닌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은 분명하다. 아울러 화성을 물리적 배경으로 삼아 정조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는 이벤트로서의 화성문화제의

14) 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수원문화재단, 2012), 71-76쪽 참조.

15) 당시 관련 사업들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과의 인터뷰.

규모와 질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한 점 역시 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는, 똑같이 화성 일대를 물리적 배경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현대 도시의 삶을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화성문화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 수원시와 전체 수원시민들에게 화성문화제가 지역정체성 표현 및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의 매개체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2012년에 열린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 나타난 양상들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IV. 화성문화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들

이 절에서는 본 논문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성공적인 도시 이벤트를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행사의 적절한 소재와 형식’,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참여 경험의 지속성’,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 ‘효율적인 공간 디자인’—라는 분석틀에 의거하여 현행의 화성문화제가 지닌 문제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¹⁶⁾

우선 연행 공간과 관련한 공간 디자인의 측면에서 볼 때, 수원 화성문화제는 일정한 공간적 틀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는 도시축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축제의 연행 공간 자체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화성과 직접 연관된 공간적 배치 안에서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화성문화제의 주요 연행 공간인 까닭에 축제기간 동안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행궁동¹⁷⁾ 주민들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도시축제가 제공하는 스펙터클과 그것이 연행되는 지역의 주민들 간에 벌어지는 공간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은 화성문화제와 같은 대형 도시 이벤트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16) 각 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황익주·정현목, 앞의 논문, 119-123쪽을 참조.

17) 행궁동은 수원시 팔달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행정동으로, 화성 성곽 내 9개 법정동과 성곽 밖 3개 법정동 등 수원 구시가지의 상당 부분을 관할하고 있다. 행궁동이라는 이름은 성곽 내부의 화성 행궁에서 비롯하였다.



그림1-수원시와 화성(안쪽 붉은 선 궤적이 화성의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map.naver.com).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¹⁸⁾

수원 화성문화제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도시축제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의 소지는 화성문화제의 규모의 급속한 팽창과 연행 공간이 지닌 특징들에 기인한다. 앞의 절에서 언급했듯이, 화성문화제의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원시 차원에서 수원 화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됨에 즈음하여 급속히 팽창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전에는 도심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원종합운동장 내부를 연행 공간으로 삼던 것을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수원 화성으로 둘러싸인 지역 전체로 변경함에 따라,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종전에 없던 여러 가지

18) Gotham, Kevin Fox, "Theorizing Urban Spectacles: Festivals, Tour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Urban Space," *City*, Vol. 9, No. 2(2005), pp. 225-246; Harcup, Tony, "Re-imagining a Post-industrial City: The Leeds St. Valentine's Fair As a Civic Spectacle," *City*, Vol. 4, No. 2(2000), pp. 215-231 참조.

불편이 초래되었다. 예컨대, 화성문화제의 메인이벤트인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및 시민환영 퍼레이드’의 참가자 집결지인 종합운동장으로부터 도착지인 화성 행궁에 이르는 도로에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진다. 특히 제49회(2012)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이 메인이벤트를 교통량이 몰리는 금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옮겨 진행하는 바람에 수원 화성 인근의 주민들 뿐 아니라 여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상당수의 수원시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¹⁹⁾ 또한 축제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지면서 저녁시간 내내 행궁동 주민들은 각종 소음, 혼잡, 쓰레기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화성문화제의 공간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가 단지 도시축제가 벌어지는 3일의 기간 동안 주요 연행 공간인 행궁동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 혼잡, 쓰레기 등만의 문제라면, 그다지 심각한 사태는 아닐 것이다. 사태를 보다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행궁동 지역의 사회적 특성과 연관된 다른 문제들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1960년대부터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의 내부 지역에 거주하는 까닭에 행궁동 주민들은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에 관련하여 각종의 행정적 제약을 받으며 생활해오고 있다. 단적으로 5층이 넘는 건물은 아파트든 상가든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고층의 아파트 단지들과 상업용·업무용 건물들을 위주로 하는 도시 경관 조성을 통해 주도되어온 현대 한국에서의 도시발전의 일반적 흐름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재산권에 대한 심한 제약이다. 그 결과 경기도 도청소재지로 지정되던 1967년까지만 해도 인구 12만 명의 중소도시에 불과했던 수원이 오늘날 인구 12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궁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원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행궁동은 수원시의 여타 지역에 비해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고, 관내에 입지하고 있는 상점들도 영세하거나 중소 규모가 많은 지역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행궁동 지역이 지닌 이러한 사회적 특성은 화성문화제의 공간 디자인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화성이라는 문화제와 관련하여 그간에 쌓여온 행궁동 주민들의 부정적 경험이

19) 수원문화재단,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 백서』(수원문화재단, 2012) 참조.

화성을 주요 연행 공간으로 삼아 전개되는 화성문화제라는 도시 이벤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만은 없는 태도를 갖게 만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사의 공간배치 및 수익분배 구조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화성 행궁 바로 남쪽에 위치한 행궁주차장에서 진행되는 ‘음식문화축제’의 경우, 화성문화제에 기부금을 낸 외부 상인들에게 천막과 점포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행궁동 주민들이 축제로부터 유리되는 데 일조하였다.²⁰⁾ 축제를 구경하러 온 외부 방문객들이 행궁동 각지를 둘러보며 지갑을 여는 대신, 제한된 공간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와 각종 부대행사만 구경한 후 먹거리와 관련한 지출은 임의로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하게 되면서, 축제에 따른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외부 상인들이 차지하는 구조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행궁동 주민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일상생활 터전에서 펼쳐지는 화성문화제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축제의 부산물로 인한 불편만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²¹⁾

이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행궁동 주민들은 축제기간 동안 개최한 ‘동네 잔치’를 통해 직접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2009년부터 시작된 남창동(행궁동을 구성하는 법정동 중 하나)의 ‘한테우물 축제’이다. 이 축제는 화성문화제로 인해 동네가 느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성문화제가 열리는 동안 퍼레이드 관람구간이나 음식문화축제 행사장과 같은 직접적인 연행 공간은 인파로 북적거린 반면, 행궁 바로 남쪽에 위치한 남창동 쪽 골목에 위치한 상점에서는 ‘파리만 날리는’ 듯한 양상이 계속되자, 이 방면으로도 축제의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바로 한테우물 축제였다고 한다. ‘지역 재생’을 목표로 삼아 구성된 ‘행궁길발전위원회’의 주관으로 시작된 한테우물 축제는 이후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증가하면서 행사의 규모가 확대되어

20)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수원문화재단, 2012)에 의하면, 음식문화축제는 가장 많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여 화성문화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대 행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만족스러운 행사로 꼽히기도 하였다.

21)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한 주민은 “어차피 행궁동에 살고 있으니 축제가 열리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동네 곳곳에 쌓인 쓰레기는 참기 어렵다. 결국 그걸 치우는 건 우리 몫인데, 직접 치우진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화성문화제와는 별도의 자생적 ‘동네축제’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행궁동 지역에서 생겨난 자생적인 동네축제의 또 다른 사례로,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를 들 수 있다. 한테우물 축제가 행궁동의 일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행사였다면, 나혜석 생가터 문화예술제는 화성 성곽 내부 전체, 즉 행궁동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동네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인이었던 나혜석의 출신지가 행궁동이었다는 사실에 착안한 이 축제는, 역시 ‘행궁 길발전위원회’의 주도로 2009년에 처음 시작된 이래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차츰 규모를 확대해왔다. 이 축제의 경우 주민들과 전문 작가들이 바라보는 축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 아직은 부족한 주민 전반의 관심도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나혜석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행궁동 전체를 하나로 묶기 좋은 상징적 소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동네축제라 하겠다. 이처럼 행궁동 내부에서 자생적 동네축제들이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화성문화제의 기획과 운영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연구자들은 생각한다.

공간 디자인의 측면에서 화성문화제가 그 연행 공간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은 주민 참여에 관련된 측면에서도 각종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연행 공간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성문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공적인 도시 이벤트가 갖추어야 할 ‘효율적인 공간 디자인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화성문화제가 안고 있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려면, 화성문화제의 다른 측면에 주민들에게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측면에도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행사의 적절한 소재와 형식’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최근 화성문화제의 외적인 규모 확대가 야기한 내부적인 문제점, 특히 행정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축제에 대한 행정의 관심이 커진 것이 화성문화제가 양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높아진 행정의 영향력은 도시축제로서의 성공적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령 수원시의 민선 시장으로 누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화성문화제에 대한 예산지원의 규모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축제의 집행위원회 측에서는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높아지는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매년 새로 선임되는 예술감독—해당 연도 축제의 기본 기획과 연출을 책임지는—의 개인적 의도에 따라 축제의 콘텐츠가 매년 바뀌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이나 주민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지점도 발생하였다.²²⁾

다음으로 본 연구자들이 성공적인 도시 이벤트를 위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참여 경험의 지속성’의 측면에 연관된 문제점을 살펴보자. 한마디로 도시 이벤트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지역주민들이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재미’를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행사의 적절한 소재와 형식’이라는 요소 역시 타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도시 이벤트에서 재미를 느끼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구경거리로서 이벤트 자체에 내재된 재미의 요소들만 좇는 외부 관광객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은 도시 이벤트의 준비과정 및 사후처리 과정으로부터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도시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흔히 ‘재미’로 총칭되는 긍정적 경험이 오래 지속될수록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도시 이벤트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본 연구자들이 앞선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다.²³⁾

그렇다면 현재의 수원 화성문화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재미있는 도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화성문화제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 관람객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한 것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는 아직은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다양화되면서 과거 화흥문화제 시절 지역

22)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 같은 연유로 제50회 화성문화제(2013)에서는 따로 예술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23) 황익주·정현목, 앞의 논문, 120쪽.

내 관변단체들 위주로 진행되던 ‘동원식 행사’로서의 성격은 많이 사라졌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가령 수원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시민환영 퍼레이드’의 경우, 제49회 축제에서는 경연방식으로 진행되어 총 20개 팀이 참가하였으나²⁴⁾ 축제 전반적으로 참여와 관심도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고, 관람객들의 호응도 역시 낮았다. 물론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당장의 ‘생계’를 뒤로한 채 축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화성문화제를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도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의 세부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여지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성공적인 도시 이벤트를 위해 필요한 마지막 구성요소인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화성문화제는 비교적 바람직한 틀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2012년 ‘수원문화재단’의 출범 이후 독립적으로 축제의 기획·운명을 전담하는 축제기획단이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행정과 민간 양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행사기간 동안 협조가 필요한 각종 민간 영역의 단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예술인 및 무예전수자 등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일방적인 관 주도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²⁵⁾ 본 연구자들이 아직 남아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코자 하는 바는, 최근 수원시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마을르네상스 사업’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행궁동 주민들의 각종 자생적인 지역공동체 살리기 프로그램들과 화성문화제가 다소 동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대형 도시 이벤트인 화성문화제가 그 주요 연행 공간인 행궁동 주민들에게는

24)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예년과 달리 총상금 2,000만 원을 걸고 경연방식의 시민 환영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20개의 경연 참가팀과 함께 기업체 9개 사와 일본의 요사코 이소란 등 4개의 초청팀이 참여하였다. 그 이면에는 시민참여 독려라는 명분과 함께, 모든 참가팀에게 일정액 이상의 참가비를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문제점도 깔려 있었다.

25) 민관이 주가 되기보다는 관 주도 축제가 대부분의 도시축제를 차지하는 현대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 구조의 확보는 행정과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 주도 축제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류정아, 『축제인류학』(살림출판사, 2003), 82-88쪽을 참조하시오.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지역정체성의 표현 및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의 매개체로서 수원 화성문화제가 보다 발전해나가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성공적인 도시 이벤트의 네 가지 요건에 비추어 현재의 화성문화제의 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해보았다.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도시 전체의 입장에서 도시의 지역정체성을 표현해내기에 대단히 훌륭한 상징적 자원인 수원 화성을 활용한 화성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주요 연행 공간에 해당하는 행궁동 지역주민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화성문화제가 상생의 도시 이벤트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어떠한 실천방안들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V. 상생의 도시 이벤트를 위한 실천방안

먼저 연행 공간의 효율적인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행궁동 지역의 공간구조 개선과 관련한 수원시 행정당국의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수원 화성 일대가 단순히 퍼레이드 및 재연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행궁동 일대의 공간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 유입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이후 수원시가 진행한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 행궁 남쪽 행궁로 일대인 남창동과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 남부 북수동이 각각 공방거리와 벽화골목으로 재탄생하면서 물리적 환경이 변화되고 지역공동체가 재생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²⁶⁾ 이어 수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 개선 작업이 미진했던 장안동과 신평동 일대²⁷⁾—화성 성곽 내의 북서부에 해당하는 구역임—에서도 2013년

26) 이와 관련하여 행궁동에서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신중진·정지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 갈등에서 상생으로의 도전」, 한국사회기반연구(SSK) 학술회의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실, 운동, 과제』 발표자료집(2013), 26-54쪽과 이근호, 「도시문화와 마을공간에 대한 새로운 구상,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국토연구원, 2013), 95-109쪽 참조.

27) 여기에서 언급된 남창동과 북수동, 장안동, 신평동은 모두 행궁동 내에 위치한 법정동들이다.

9월 개최된 '생태교통 수원 2013' 페스티벌을 계기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외부 관람객들이 찾기에 손색없는 공간적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시도들을 통해 축제기간 동안 수원 화성을 찾은 방문객들이 행궁동이라는 공간 자체에 좀 더 머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를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이다.²⁸⁾ 아울러 축제가 펼쳐지는 연행 공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운영하는 여러 상점 역시 축제를 구성하는 공간적 요소들로 함께 포함시키는 효과도 제한적이거나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축제의 공간적 범위를 연행 공간 외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도시 이벤트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글래스고의 웨스트엔드 페스티벌(West End Festival)의 사례는, 도시축제의 주요 행사들 외에도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매력 요소가 도시 이벤트와 지역사회 간의 조화, 그리고 도시 이벤트 자체의 성공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⁹⁾ 이 사례에서 축제기간 동안 외부에서 온 방문자들은 행사의 연행 공간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거리와 골목들을 거닐면서 지역사회가 지닌 역사적 기억과 의미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를 통해 다른 여러 부수적인 재미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곧 축제를 찾은 방문자들의 만족도 상승에 기여하는 한편, 축제가 열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의 상승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원의 행궁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간환경 개선의 시도들로부터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방문자들에게 축제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외에도 수원의 도심지역이 갖고 있는 숨은 매력들을 체험하게 해줌으로써, 화성문화제 자체를 보다 재미있는 이벤트로서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행궁동이라는 지역에 대해 낙후된 동네에 불과하다는 선입견과 다른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동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관련한 실천방안들 가운데 우선 행사의 적절한

28) 이 연구가 진행된 시점이 생태교통 수원 페스티벌이 개최된 2013년 9월보다 앞선 시기였기에, 아쉽게도 이러한 공간적 개선 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논의에 반영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29) Stevens, Quentin & Haeran Shin, "Urban Festivals and Local Social Space," *Planning Practice & Research*, DOI: 10.1080/02697459.2012.699923, 2012, pp. 1-20 참조.

소개와 형식의 측면을 살펴보자. 화성문화제가 보다 효과적인 도시 이벤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건의 충실한 재연 외에도, 주요 연행 공간에 사는 행궁동 주민들의 현재적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원의 여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우리 도시'의 일이자 나의 일로서 화성문화제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역시 필요하다. 역사적 사건의 재연을 전체 도시 축제의 기조로 삼는 점은 유지하면서도, 각종 재연행사와 부대행사에 더 많은 행궁동 및 수원의 여타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주민들의 긍정적 참여 경험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직접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 모색은 필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 시민환영 퍼레이드의 경연팀들 중 하나로 참가했던 '수원 화성 시민공연단'의 사례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행궁동에서 활동 중인 한 공연기획인의 주도하에 조직된 시민공연단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공연기획인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50명 규모의 팀을 구성하여 퍼레이드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화성문화제가 수원의 대표적 도시축제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원이라는 지역사회에서 화성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관심과 자부심에서 축제에 직접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축제의 경우에는 주도자였던 공연기획인이 사비를 털어 참가경비를 마련했지만, 2013년부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수원 화성만의 판타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에서 앞으로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이 집단을 주도한 공연기획인의 경우 행궁동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출신지가 행궁동은 아니었기에 다른 행궁동 토박이 주민들에 비해 오히려 더 쉽게 화성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최근 마을르네상스 사업 이후 행궁동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라는 평판을 획득하면서 외지 출신의 예술인들이 행궁동에 들어와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화예술인들과 행궁동 주민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화성문화제라는 도시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앞으로 더 많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성공적인 지역축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³⁰⁾,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문·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참여는 도시 이벤트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 화성 시민공연단’의 사례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행궁동뿐 아니라 수원시 전체 차원에서 화성문화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공연단은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수원 각지의 동네 단위에서 참가팀을 꾸려 각 동네별로 시민환영 퍼레이드에 함께 나갈 용(龍)－조선시대의 왕(정조)을 상징하는－을 만들어 경연을 펼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이나 일본의 요사코이 마쓰리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경연이라는 방식은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축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동기부여의 요인으로서 매우 효과적이다.³¹⁾ 또한 이러한 지역 차원의 공동작업을 통해 수원시민들이 화성에 대해 보다 큰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수원의 도시정체성과 거주지의 동네정체성이 함께 함양되는 효과 역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화성문화제를 통해 수원시민 전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가령 축제기간 내내 정조대왕 역과 혜경궁 홍씨 역을 맡게 될 사람들을 선발할 때 지금보다 더 공개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지역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1996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정조대왕 및 혜경궁 홍씨 선발대회는 2002년부터 격년제로 변경되어 개최되어왔으며, 선발된 사람들은 2년 동안 수원시

30) McCabe, Scott, “The Making of Community Identity through Historic Festive Practice: The Case of Ashbourne Royal Shrovetide Football,” in Picard, David & Mike Robinson(eds.), *Festivals, Tourism and Change: Remaking Worlds*(Channel View Publications, 2006), pp. 113-115.

31) 축제에서 한 도시 내의 소규모 지역 단위들 간의 경쟁 구도는 행사의 재미를 담보함으로써 축제가 지속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열리는 팔리오 축제의 사례를 보면, 콘트라다(contrada, 복수형은 contrade)라 불리는 중세의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 위치한 17개의 동네들이 1년에 두 차례, 한 번에 4일씩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이르는 경마대회를 펼치는데, 이 과정에서 동네들 간의 경쟁은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축제에 재미를 배가시키는 한편, 주민들로 하여금 팔리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Dresch, Wolfgang, “The Contrade, the Palio, and the Ben Comune: Lessons from Siena,” *Trames*, Vo. 10, No. 2(2006), p.99-125 참조.

관광홍보대사 자격을 부여받아 화성문화제 등 수원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지역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³²⁾ 이 행사에서 후보자들을 각 동마다 내도록 하여 공개 선발하는 과정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그 과정을 전체 수원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화성문화제에 대한 수원시민들의 전반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조의 측면에서 본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비는 현재 수원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마을르네상스 사업과 수원 화성문화제라는 도시 이벤트 간의 조화이다. 수원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화성은 도시의 지역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매우 좋은 소재임에 분명하며, 화성문화제는 그를 매개하기 위한 도시 이벤트로서 점차 그 규모와 질적 수준을 높여왔다. 하지만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그러한 연유로 화성 일대를 일상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도심 주민들이 화성과 화성문화제로 인해 볼모로 잡히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원시 행정당국과 행궁동 주민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행히 행궁동의 경우,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 진행으로 동네 각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자발적 조직들이 상당 정도 자리 잡고 있다.³³⁾ 아직까지 이러한 마을 단위의 도시 지역공동체 운동에서 도시 이벤트에 대한 고려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³⁴⁾, 도시 이벤트가 지닌 잠재력을 감안하면,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현장활동가들과 화성문화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수원시의 행정당국자들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한 전제로서 한편으로는 행궁동의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화성문

32) 「정조대왕역 빨리 공개선발해야」, 《경기일보》, 2013년 9월 2일자 사설.

33)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신중진·정지혜, 앞의 발표문 참조.

34)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로 대구 삼덕동의 인형마임축제를 들 수 있다. 담장 허물기 운동으로 유명한 삼덕동 지역에서 어린이날을 전후해 열리는 이 축제는 축제기간 동안 마을 공간 전체를 인형극이 매개가 되는 놀이터로 만들어 재개발로 인해 반목하던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동시에 외부인들의 관심까지 끌어 모으게 된 이 축제는 마을 단위에서 출발하여 규모는 작지만,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축제로 자리 잡았다. 김은희·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대구 삼덕동 마을 만들기』(한울, 2010) 참조.

화제에 대해 자신들에게 고생만 끼치는 귀찮은 남의 일이라기보다는 자기네 동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향상시켜 유·무형의 긍정적 결과들을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동네 일이라고 발상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화성문화제의 기획을 담당하는 수원문화재단 및 수원시청의 관련 부서에서는 행궁동 지역에서 생겨난 각종 다양한 동네축제의 시도들을 화성문화제의 정규 부대행사로 접목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면서도 동시적으로 진행되어 수원 외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눈에는 넓은 의미의 수원 화성문화제의 일부를 이루는 행사들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³⁵⁾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수원을 대표하는 도시축제인 수원 화성문화제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통해, 도시의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며 동일시하여 긍정적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삼는 대상, 즉 도시 지역공동체로서 형성해내는 일에 도시 이벤트를 활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맥락에 충실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우선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이 ‘도시정체성’과 ‘동네정체성’이라는 2개의 층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 도시 이벤트가 도시 내의 특정 장소를 연행 공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맞물려 때로 도시 이벤트에 대한 특정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도시 이벤트의 연행 공간으로서 도심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담론구조상으로 도시 전체의 일이라고 언명되는 도시 이벤트

35) 가령, 외국의 도시축제 중 전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에딘버러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은 실제로는 1947년에 시작된 본 축제에 더하여 시기를 달리하며 추가된 다수의 축제가 결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딘버러 시 당국과의 협조하에 수많은 작은 축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조율이 잘 이루어져 외부 방문객들은 흔히 그 전체를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하나의 도시 이벤트라고 인식하게 된다. Munro, Iain & Silvia Jordan, “‘Living Space’ at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Spatial Tactics and the Politics of Smooth Space,” *Human Relations*, DOI: 10.1177/ 0018726713480411, pp. 3-4. 참조.

가 도심을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얽히는 경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들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원 화성문화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2012년 가을에 거행된 제49회 화성문화제 행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 이벤트로서 화성문화제의 기획 및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들 문제점을 크게 공간 디자인과 주민 참여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적 문제점들이 수원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수원 화성의 내부에 해당하는 도심지역으로서 화성문화제의 주요 연행 공간을 이루는 행궁동 주민들 사이에는 화성문화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반발하는 태도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주목해보았다. 다음으로는 화성문화제의 주요 연행 공간인 행궁동의 주민들, 화성문화제를 통해 수원시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수원시의 여타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화성문화제의 기획 및 운영을 주관하는 행정당국 등 참여주체들 모두에게 화성문화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필요한 실천방안이라고 본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제시해보았다. 특히 화성문화제의 연행 공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을 위한 행궁동 지역에서의 공간구조 개선과 지역주민 및 외부 방문자들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모색의 일환으로 현재 수원시에서 활발히 전개 중인 '마을' 단위의 다양한 도시 지역공동체 운동의 참여주체들과 전체 도시 차원의 도시 이벤트인 화성문화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여하는 행정조직 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의와 협력의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수원시 전체의 차원에서 지역정체성을 표현하는 도시 이벤트인 화성문화제의 사례에 대한 집중적 분석인 본 연구의 결과는,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르네상스' 등으로 불리며 전국 각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 단위의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한 실천들에 대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이제 두 가지 각도에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를 맺고자 한다. 첫째,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촉매로서 도시 이벤트가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여 마을 단위의 실천들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행궁동의 일부 주민들이 드러내는 반발감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문화제가 수원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는 이벤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로 미루어 판단컨대, 적절한 기획과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 내 각급 동네 차원에서 거행되는 도시 이벤트들도 동네 주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화성문화제에 대한 행궁동 주민들의 불만을 저변에 깔고 있는 행궁동 지역의 자생적 동네축제들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동네 차원에서 성공적인 도시 이벤트를 새로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동네가 지닌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정 도시 속에서 특정 동네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사회적 위상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적 배경상의 특성들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주민들의 관심과 취향에 부합하는 행사의 소재와 형식을 찾아내고, 주민들이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에 따라 재미를 느끼면서 해당 도시 이벤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돌베개, 2002.
- 김은희·김경민,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한울, 2010.
- 김효경·류시영, 「지역축제 소비자-브랜드 관계의 영향요인: 수원화성문화제 커뮤니티케이션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6집 5호, 2012, 233-246쪽.
- 류인평, 「문화관광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화성문화제 관광객의 만족도와 선호도 조사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22집, 2004, 47-72쪽.
-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출판사, 2003.
- 수원문화재단, 『제49회 수원 화성문화제 백서』. 수원문화재단, 2012.
- 신종진·정지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의 역할과 과제: 수원화성과 행궁동 사람들, 갈등에서 상생으로의 도전」. 한국사회기반연구(SSK) 학술회의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실, 운동, 과제』 발표자료집, 2013, 26-54쪽.
- 이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 『제49회 수원화성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 수원문화재단, 2012.
- 이근호, 「도시문화와 마을공간에 대한 새로운 구상,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 국토연구원, 2013, 95-109쪽.
- 최화열·노하은, 「지역축제의 관광특성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수원화성문화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19집 1호, 2009, 27-35쪽.
- 황익주, 「도시의 공간성과 지역공동체」. 『2007년도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가족·문화·커뮤니티 발표논문집』. 2007, 1-21쪽.
- 황익주·정현목, 「도시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의 과제: 4개 도시 사례의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5집 2호, 2012, 102-128쪽.
- Drechsler, Wolfgang, “The *Contrade*, the *Palio*, and the *Ben Comune*: Lessons from Siena.” *Trames*, Vol. 10, No. 2, 2006, pp. 99-125.
- Evans-Pritchard, Edward E., *The Nu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 Gotham, Kevin Fox, “Theorizing urban spectacles: Festivals, tour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urban space.” *City*, Vol. 9, No. 2, 2005, pp. 225-246.
- Harcup, Tony, “Re-imagining a post-industrial city: The Leeds St. Valentine’s Fair as a civic spectacle.” *City*, Vol. 4, No. 2, 2000, pp. 215-231.
- Hwang, Ik-joo, *Class, Religion, and Local Community: Social Grouping in Nenagh, Republic of Ireland*. Ph.D. Thesis, University of Oxford, 1992.
- Krupat, Edward, *People in Cities: the Urban Envrionment and Its Effect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McCabe, Scott, "The Making of Community Identity through Historic Festive Practice: The Case of Ashbourne Royal Shrovetide Football." in Picard, David & Mike Robinson(eds.), *Festivals, Tourism and Change: Remaking Worlds*, Channel View Publications, 2006, pp. 99-118.
- Munro, Iain & Silvia Jordan, "'Living Space' at the Edinburgh Festival Fringe: Spatial Tactics and the Politics of Smooth Space." *Human Relations*, DOI: 10.1177/0018726713480411, pp. 1-24.
- Peace, Adrian, "'A Different Place Altogether': Diversity, Unity and Boundary in an Irish Village." Anthony Cohen(ed.), *Symbolising Boundaries: Identity and Diversity in British Cultur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6, pp. 107-122.
- Stevens, Quentin & Haeran Shin, "Urban Festivals and Local Social Space." *Planning Practice & Research*, DOI: 10.1080/02697459.2012.699923, 2012, pp. 1-20.
- Wirth, Louis,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No. 1, 1938, pp. 1-24.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도시축제인 수원 화성문화제에 대한 집중적 사례연구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며 동일시하여 긍정적 자아정체성의 일부로 삼는 대상, 즉 '도시 지역공동체'로서 형성해내는 일에 도시 이벤트를 활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것들에 대한 현장의 맥락에 충실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민의 지역정체성이 '도시정체성'과 '동네정체성'이라는 2개의 층위로 나누어져 있음에 주목하고, 그런 점이 도시 이벤트의 연행 공간과 관련하여 갖는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두 가지 층위의 존재와 도시 이벤트가 도시 내의 특정 장소에서 연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때로 도시 이벤트에 대한 특정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도시 이벤트의 연행 공간으로서 도심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담론구조상으로 도시 전체의 일이라 언명되는 도시 이벤트가 도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엮히는 경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수원 화성문화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고, 2012년 가을에 거행된 제49회 화성문화제 행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 이벤트로서 화성문화제의 기획 및 운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의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이 문제점들을 크게 공간 디자인과 주민 참여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적 문제점들이 수원의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화성문화제의 주요 연행 공간인 수원시 행궁동의 주민들과 여타 지역의 주민들 및 행정당국 등 참여주체들 모두에게 화성문화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위해 필요한 실천방안들을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화성문화제의 연행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선하는 일, 또한 지역주민 및 외부 방문자들 모두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현재 수원시에서 활발히 전개 중인 마을 단위의 다양한 도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참여주체들과 전체 도시 차원의 도시 이벤트인 화성문화제의 기획 및 운영에 관여하는 행정조직 간에 보다 유기적인 협의와 협력의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투고일 2013. 10. 11.

심사일 2013. 11. 10.

게재 확정일 2013. 11. 15.

주제어(keyword) 도시 이벤트(urban event),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도시정체성(civic identity), 동네정체성(*dongne identity*), 연행 공간(performance space), 주민 참여(residents participation)

